6자 외교장관회담 조기 개최 어려울 듯

北, 핵 폐쇄시점 고수·IAEA 사찰단 입북도 늦춰져

총선 앞둔 日 난색…라이스 美 국무도 참석 불투명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이 추진해온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사실상 조기에 성사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은 2·13합의 초기조치인 핵시설 폐쇄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자 외교장관회담을 이달 안에 개최할 방침이었으나 의견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국들은 북한이 핵시설 폐쇄에 착수하는 직후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열어 2단계 조치를 논의한 뒤 폐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7월 초에 6자 수석대표회담을 열고 7월23~24일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이 관련국 사이에 논의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받을 중유 5만t 가운데 1차 선적분(6천200t)을 받는 시점에 핵시설을 가동중단(폐쇄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입북 등의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관련국들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께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일정(총선)을 앞둔 일본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6자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데다 중동 현안으로 인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ARF 참석 여부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8월초까지도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과 IAEA가 합의한 핵시설 폐쇄조치가 단기에 완료되고 2단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라이스 장관이 일정을 변경해 외교장관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경우 비핵화 현안 뿐 아니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가 본격 논의되며 4자 평화포럼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6자 외교장관회담이 조기에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 등은 2·13합의의 초기조치인 핵시설 폐쇄를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30일께 베이징에서 6자회담 본회담을 소집해 2단계 조치인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협의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 말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경우 미국은 사전에 북한과 양자회담을 열어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최고의 길일' 777일에 첫 키스를

행운의 숫자 7이 세 번 겹쳐 최고의 길일로 꼽힌 2007년 7월 7일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각국에서는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대가 결혼식 붐을 일으켰다. 이날 집단 결혼식을 올린 33쌍의 커플들이 라스베이거스의 맨덜레이 베이 호텔 앞에서 남편과 부인으로서 첫 번째 키스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라크서 자폭테러…최소 105명 사망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부근 에메를리의 시장에서 7일 오전 트럭을 이용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105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보안·보건 당국이 밝혔다.

AFP통신과 알 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30분께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65㎞ 떨어진 이 마을의 번잡한 시장에서 강력한 폭탄테러가 발생, 105명이 죽고 250여명이 다쳤다.

그러나 사망자 수가 125명이라는 보고도 있으며 파괴된 주택 잔해 더미에서 시신이 속속 발견되면서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록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폭탄테러로 대규모 인명피해뿐 아니라 주택 40채, 상점 20여곳과 차량 10대도 파괴됐다.

트럭을 이용한 자살 폭탄테러로 최소 105명이 숨진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부근 에메를리의 시장에서 한 이라크인이 부상당한 소년을 안고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날 차량 폭탄테러는 190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4월18일 바그다드의 차량폭탄테러 이후 최대 인명피해 규모를 기록했다. /두바이=연합뉴스

"한국 '빅맥' 가격 47개국중 16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환율을 맥도날드사의 '빅맥' 햄버거 가격으로 환산, 비교하는 '빅맥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7개국 가운데 16위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5일 인터넷판에서 미국 달러화의 지난 2일 환율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빅맥' 가격이 3.14달러였다고 보도했다.

47개국 가운데 '빅맥'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7.61달러의 아이슬란드였고 노르웨이(6.88달러), 스위스(5.20달러), 덴마크(5.08달러), 스웨덴(4.86달러) 등이 상위권에 자리잡았고, 유로화 사용국가들은 평균 4.17달러로 6위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빅맥 지수'는 1.45달러로 가장 낮았고 홍콩(1.54달러), 말레이시아(1.60달러) 등 국가들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의 '빅맥 지수'를 반영해 환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통화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8%, 58% 각각 저평가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국산 식품 주의보! 전세계 확산

각국 정부·수입기업 경계속 검사 강화

中 강온 전략 구사…美와 무역전쟁 조짐

중국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애완동물 사료, '독성 치약', 수산물 등 각종 중국 식품이 유해 시비를 일으키면서 대거 리콜당하거나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진데 이어 유럽연합(EU)와 아시아에서도 중국 식품에 대한 경계경보가 내려졌다고 주로 미국계 언론들이 최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중국은 일단 수세인 점을 의식한 듯 식품류에 '불량품'이 많다고 고백하며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도 미국이 자국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한데 맞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애완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밀단백에 인체에 유해한 멜라민이 함유됐음이 드러나면서부터다.

미 당국은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일단 자국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조치로 성의를 보였다.

미-중간 식품 안전성 충돌은 그러나 독성 치약에 이어 수산물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항균제 성분이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홍콩의 경우 이번 주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파크앤샵(Park N Shop)이 신선한 중국산 채소에 한해 컴퓨터 바코드를 부착한다는 광고를 시작했다.

일본은 지난주 중국산 치약 수백만개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치약을 위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대만은 중국산 건조 버섯과 대나무에서 수은과 납 등 중금속 오염을 적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강경조치 영향으로 회원국들에 가짜 또는 유해 중국산 치약을 최근 적발했는 지 보고토록 지시하는 등 비상에 들어갔다.

중국은 자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하자 양면작전을 구사하면서 미국이 중국 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조치를 강화한데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강경하게 맞서면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美 백인 남자대통령 218년 역사 깨질까

"흑인에 92%, 여성후보에 투표 86%"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후보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미국인들은 여성 대통령 후보나 흑인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사에서 218년간 유지돼온 '백인 남자 대통령' 기록이 내년 대선에서는 깨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스위크가 지난 2~3일 미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흑인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86%는 여성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롱받던 한국 샤머니즘이 부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정보기술 사회를 건설한 한국에서 오랜 세월 조롱과 박해를 받아왔던 샤머니즘이 부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무속인 관련 단체의 통계를 인용, 한국 내 무속인이 30여만명에 달한다면서 무속인들이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 아래에서 음지로 내몰리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샤머니즘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샤머니즘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올해와 같은 선거철에는 유명 무속인들의 사당에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면서 무속인들이 한국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샤머니즘과 무속인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무속인들이 원시종교적 관념에 의하여 주재하는 새신(賽神) 의식인 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한국이 종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원론적인 국가가 되는데도 샤머니즘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소개했다. /뉴욕=연합뉴스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차(월~토) 시험일 : 10월28일
▶주택관리사 1,2차(월~토) 시험일 : 10월21일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말반(토,일) 시험일 : 10월21일
◉모집대상
▶훈련도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이신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수료후 100~8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컴 퓨 터 과 정-
◉모집과정
▶정보화기초1과정 윈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활용
▶정보화기초2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기타사항
▶수료후 10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수업시간
▶월수금 19 : 00~21 : 00(기초2) ▶화,목 19 : 00~21 : 00(기초1)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 여름 방학을 뜻깊게… 올하반기 전남교육행정직 합격 가장 용이 =
7·9급 공무원 大특강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복지직 전산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시험案內 ※전남행정직:10월 13일 7급 23명 9급 193명 확정
※전남교육행정직:올 하반기 ○○○명 시험 예정
※전북2차 9급행정직 109명 9월 8일 시험
개 강 7月9日 주·야반 모집 (현재 예약 접수중)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kimyoung.co.kr
그룹안 김영출신 12만여명 합격
앞선 시작, 앞서가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김영선생 대학편입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개강 : 1차-6월 25일, 2차-7월 2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경희대(서울) 178명 합격, 고려대(안암)238명 합격
서강대 104명 합격, 성균관대 270명 합격, 중앙대 388명 합격
한국외대 295명 합격, 한양대 365명 합격 등(최초합격자 기준, 합격 학사 조회)
역시! 김영! 중앙대 102명 중 67명, 한양대 185명중 137명
김영편입·PMS학원(광주동부경찰서뒤) ☎ 227-8088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정규직)
◉2년제이상 졸업자
◉남,녀(30세미만)
◉이력서지참요
주관 :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062)511-6359
H.P.017-631-4467
서울지원 TEL.02)3664-5263